■ 민족문화연구 제89호(2020.11.3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477-509.
http://doi.org/10.17948/kcs.2020..89.477

해방 공간에 대응한 가사문학*
—문학적 의미, 그리고 가사문학사적 의의—

고순희(高淳姬)**

목 차

1. 머리말
2. 작품세계의 전개 양상
3. 문학적 의미 : 당대적 다큐멘터리
4. 맺음말 : 가사문학사적 의의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해방 공간에 대응하여 창작한 가사문학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고 그 문학적 의미와 가사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는 데 있다.

먼저 해방 공간에 대응하여 창작한 가사문학의 전개양상을 살펴보았다. 전개양상은 각 작품이 담고 있는 작품세계에 따라 크게 '해방 시국 자체를 서술한 가사(6편)'와 '해방과 개인의 삶을 서술한 가사(7편)'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후자는 다시 '국내 체류자의 가사(3편)'와 '귀환자의 가사(4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들 가사로 확인된 작품은 총 13편인데, 이 가운데 처음 소개되거나 거의 연구되지 않은 작품이 8편이나 된다. 그리하여 각 가사에 대한 소재지, 작가, 창작시기, 작품의 내용 등을 충실하게

*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19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경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고증, 서술함으로써 이 시기 가사문학 연구의 1차 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이들 가사의 문학적 의미를 규명했다. 이들 가사는 해방 공간을 살아간 각 개인의 다양한 삶과 해방 공간을 바라본 당대인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어 당대를 증언하는 다큐멘터리로 기능한다는 문학적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이들 가사의 가사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였다. 이들 가사는 해방 후에도 가사문학이 여전히 살아 있는 장르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라는 면에서 가사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가사문학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가사문학사의 시각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들 가사의 작가가 대부분 경북지역에 한정된 점과 작품세계의 봉건성은 한계로 드러난다.

주제어: 해방, 해방가, 사국가사, 조선건국가, 자탄가, 일오전쟁회고가.

1. 머리말

일제강점기에도 가사문학은 활발하게 창작되어 현재 수천 편의 엄청난 필사본을 남기고 있다. 그런데 이 필사본들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여 그 가운데서 의미 있는 가사 작품을 발굴해내는 작업이 품이 많이 들어서인지 몰라도 현재 이 작업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매우 드물다. 그리하여 많은 필사본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사 필사본을 읽고 의미 있는 작품을 선별해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역사·사회에 대응하여 창작한 가사 작품에 주목하여 가사 필사본을 읽어왔다. 이 논문에서는 필자가 필사본은 물론 지자체에서 출간한 가사집, 가사조사자료 DB, 가사 연구서 등을 모두 조사하여 정리해둔 '해방 직후 해방 공간에 대응하여 창작한 가사'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추후 이 가사 작품군에 해당하는 가사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들 가사에 대한 연구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필자가 해방 직후 해방 공간에 대응하여 창작한 가사로 확인한 작품은 총 13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1947년 봄까지 창작된 가사만 연구의 대상으로 했다. 그리하여 한국전쟁을 겪은 후 이전의 역사와 함께 해방 공간을 서술한 가사는 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연구는 해방 공간이

라는 특정 시기에 창작된 가사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여 제시할 것이므로 일차적으로 이 시기의 연구자료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해방 공간이라는 특정 시기의 가사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이들 가사 가운데 〈일오전쟁회고가라〉는 작품론이 이루어졌으며, 〈원망가〉, 〈자탄가〉, 〈춘풍감회녹〉 등은 징병 관련 유형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있고, 〈조선건국가〉와 〈ᄉᆞ국가ᄉᆞ〉는 여러 가사를 다루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된 바 있지만, 그 외 나머지 가사는 전혀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가 없다. 한편 〈해방 후의 조선동입가라〉라는 필사본의 경우 실은 〈조선건국가〉의 이본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사 작품으로 소개되고 활자화되기도 했다[1].

이들 가사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은 것은 필사본 읽기가 어려웠던 탓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들 가사가 지닌 문학성에 대한 낮은 기대치가 작용한 탓이 있다. 해방 공간을 살아간 당대인의 삶과 의식을 담고 있는 이들 가사문학이 지닌 문학적 의미가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가사문학 작품들은 가사문학사의 전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들 가사 작품들은 일제강점기에 가사문학이 쇠퇴기에 접어든 것이 아니라 비록 일부 지역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이후 가사문학사의 전개 실상이 어떠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해방 직후 해방 공간에서 창작된 가사 작품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의도도 아울러 지닌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해방 직후 해방 공간에 대응하여 창작한 가사문학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그 문학적 의미와 가사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는 데 있다. 먼저 2장에서는 해방 직후 해방 공간에 대응하여 창작한 가사문학의 전개 양상을 살핀다. 이들 가사의 전개 양상은 작품세계를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작품의 소재지와 이본을 제시하고, 각 가사가 해방 공간에서 창작된 것이 맞는지 그 창작시기를 밝힌다. 그리고 이들 가사의 작가는 대부분 무명씨이기 때문에 작가의 성별 정도를 추정하고, 각 가사에서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1) 이들 가사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2장의 각 작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제시하고자 하니 그것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시한다. 3장에서는 이들 가사의 문학적 의미를 규명하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맺음말을 대신하여 이들 가사의 가사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작품세계의 전개 양상

해방 직후 해방 공간에 대응하여 창작한 가사문학으로 확인된 것은 총 13편이다. 이들 가사는 공통적으로 해방의 기쁨을 서술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양하다. 그리하여 이들 가사의 전개 양상을 작품세계를 기준으로 크게 '해방 시국 자체에 대한 서술'과 '해방과 개인 삶의 서술' 두 가지로 나누고, 후자는 다시 '국내 체류자의 해방'과 '귀환자의 해방'으로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작품세계의 전개 양상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수는 4음보를 1구로 계산한 것이다.

〈표〉 해방 직후 해방 공간에 대응하여 창작된 가사

작품세계	세항	작품명	창작시기	작가	구수
해방시국자체에 대한 서술		〈해방가라〉	1945년	남성 추정	40
		〈한인사〉	1945년	김광정	209
		〈조선건국가〉	1945년 경	남성	139
		〈ᄉᆞ국가ᄉᆞ〉	1945년 경	남성	229
		〈히방환희가〉	1945년 경	남성	161
		〈백의천ᄉᆞ〉	1946년 봄	남성	127
해방, 개인 삶의 서술	국내 체류자의 해방	〈히방후환히락가〉	1945년	여성	100
		〈원망가〉	1945년	여성	146
		〈자탄가〉	1946년	남성	389
	귀환자의 해방	〈단동설육가〉	1945년	여성	106
		〈일오젼징회고가라〉	1946년 봄	불분명	143
		〈해방가(解放歌)〉	1946년 봄	남성	274
		〈춘풍감회녹〉	1947년 봄	김중욱	176

1) 해방 시국 자체에 대한 서술

해방 시국 자체에만 관심을 두어 개인의 삶은 전혀 서술하지 않은 가사로 총 6편이 확인되었다.

① 〈해방가라〉

〈해방가라〉의 필사본은 한국가사문학관 홈페이지[2]에 JPG 파일로 올라와 있다. 가사의 말미에 '을유팔월 십오일 히방익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창작 시기는 1945년 8월 16일임이 분명하다. 작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해방가라〉는 정확하게 4·4자 연속의 형식을 유지하고 "蹈湯赴火[끓는 물을 밟고 타는 불속에 들어감]"나 "砲煙彈雨[총포의 연기와 비 오듯 하는 탄알]"와 같이 가사문학에서 관습적으로 쓰는 한자어가 아닌 한자어도 쓰고 있다. 기계적인 4·4자 형식과 어려운 4자 한자어는 주로 남성의 가사 작품에서 많이 발견되는 특징이다. 그리하여 조심스럽긴 하지만 작가는 남성으로 추정된다.

〈해방가라〉는 4음보를 1구로 계산할 때 총 40구이다. 길이가 짧은 만치 내용도 비교적 단순하여 해방의 기쁨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기원을 서술했다. 해방의 기쁨은 같이 즐기자는 의미에서 청유 형태로, 그리고 독립된 나라의 미래에 대한 기원은 축원 형태로 서술한 가운데, 짤막하게나마 일제의 핍박현실과 독립지사에 대한 회고를 서술하기도 했다.

② 〈한인사〉

〈한인사〉는 「내방가사 조사, 정리 및 DB 구축」[3]에 활자본만 실려 전한다. 가사의 말미에 "개국 사쳔이백칠십팔년 팔월 이십일 김해 김광졍 잡감리"라고 기록되어 있어 창작시기는 1945년 8월 20일이 분명하다. 작가는 김해에 사는 '김광정'으로 남성인 것은 분명하나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한인사〉는 4음보를 1구로 계산할 때 총 209구이다. 내용은 제목에 드러나듯이 해방의 기쁨 속에서 나라의 역사를 되짚어 본 것이 중심을 이룬다. 서두의

2) 「해방가라」, 한국가사문학관, http://www.gasa.go.kr/WService/Gasa/Bibliograph/DetailView.aspx?TopID=A&SubID=01&VerseID=V00004679(2020. 9. 30. 검색).

3) 「한인사」,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경상북도 내방가사 조사·정리 및 DB 구축, http://waks.aks.ac.kr/dir/achieveView.aspx?secType=%EA%B3%A0%EC%84%9C%C2%B7%EA%B3%A0%EB%AC%B8%EC%84%9C&dirCate=&sType=&sWord=&fq=%ED%86%B5%ED%95%A9%EA%B3%BC%EC%A0%9CID_ext%3aAKS-2011-EBZ-2104&dataID=AKS-2011-EBZ-2104_DES@0293(2020. 9. 30. 검색). 여기에는 활자화한 것만 있고, 원필사본은 업로드되지 않았다.

10구와 마지막의 12구만 해방의 기쁨을 서술했다. 그 중간은 먼저 95구에 걸쳐 대한의 지세, 단군, 기자조선, 부여・삼한・예맥,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진 근대기 이전의 역사를 서술한 후, 92구에 걸쳐 근대기 이후부터 해방까지의 역사, 즉 서양문명 동진, 대한제국, 러일전쟁, 헤이그밀사, 의병, 경술국치, 일제강점기의 현실, 세계대전과 대한인의 고통, 해방 등을 서술했다.

③ 〈조선건국가〉

〈조선건국가〉[4]는 이본이 5편이나 확인되어 이 논문에서 대상으로 한 작품 중 가장 활발하게 향유되었던 가사이다. 『규방가사각론』에 실린 활자본은 제목이 〈조선건국가〉(〈됴션해방가〉, 〈대조선독립가〉)로 되어 있는데, 필사본을 활자화하는 과정에서 구절의 순서를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다른 이본과 대조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가사문학관에는 〈해방 후의 조선독립가라〉가 소장되어 있어, 『오늘의 가사문학』에서 간단한 해제, 활자본(고어표기), 현대역 등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필사본의 JPG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았다. 한편 「내방가사 조사, 정리 및 DB 구축」에는 〈조선건국가사집〉과 〈조선건국가〉라는 제목으로 두 편이 활자본으로 실려 있다. 이 가운데 〈조선건국가사집〉은 국한문 혼용체이다. 그런데 「내방가사 조사, 정리 및 DB 구축」에 실린 〈조선건국가사집〉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5].

---

4) 이 가사의 제목은 '조선건국가, 됴션해방가, 대조선독립가, 해방 후의 조선동입가라, 조선건국가사집' 등 매우 다양하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제목 가운데 대표격이라고 생각되는 「조선건국가」로 가사의 제목을 삼았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이본을 인용하고자 한다.

5) 권영철, 『규방가사각론』, 형설출판사, 1966, 370-376면. 권영철은 이 가사에 대한 설명에서 '본가의 제목으로 「조선건국가」로 된 것은 봉화지방과 청송지방이며, 안동지방에서는 「됴션해방가」이며, 달성군 이남지방에서는 「대조선독립가」로 되어 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이다. 본항에서는 청송지방에 전파되어 있는 권씨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라고 했다. 같은 책, 370면.

김은수, 「가사의 해제와 현대역 ⑨ 해방 후의 조선독립가라」, 『오늘의 가사문학』 제6호, 한국가사문학관, 2015, 320-334면. 필자는 가사문학관의 도움으로 필사본을 구해 볼 수 있었다. 필사본을 확인한 결과 제목은 〈해방 후의 조선동입가라〉이다.

「조선건국가사집」,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경상북도 내방가사 조사・정리 및 DB 구축, http://waks.aks.ac.kr/dir/achieveView.aspx?secType=%EA%B3%A0%EC%84%9C%C2%B7%EA%B3%A0%EB%AC%B8%EC%84%9C&dirCate=&sType=&sWord=&fq=%ED%86%B5%ED%95%A9%E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건국가사집〉의 말미에는 "金陵樵人 自放[금릉초인이 스스로 마음 내키는대로 써놓다]"이라는 기록이 있으므로, 작가는 '금릉초인'이라는 호를 가진 남성이 분명하다. 그리고 경상북도 김천의 옛 이름이 금릉이므로 작가는 김천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가사의 내용 가운데 "비나이다 하나님게 在外同胞 힘을도아 / 趙氏의 連城璧이 完歸할날 있게하소"라는 구절이 있다. '조씨'와 '금릉'을 연관지어보면 김천시 금릉군 남면의 창녕조씨 집성촌을 떠올릴 수 있으므로 작가는 김천시 금릉군의 창녕조씨 문중의 남성일 가능성도 있다[6]. 그리고 가사의 내용에는 "늙고 病든 우리내"와 같이 연로함에 대한 언급이 많아 작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분명하다. 따라서 〈조선건국가〉의 작가는 '금릉초인'이라는 호를 가진 연로한 남성으로 김천시 금릉군의 창녕조씨 문중인일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다.

〈조선건국가〉의 창작시기는 가사의 서두에서 '해방 소리에 가사를 짓는다'고 하고, 전쟁에 나간 청년과 해외망명자의 귀국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45년을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건국가〉는 4음보를 1구로 계산할 때 총 139구이다. 확실하지 않은 '조씨'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내용은 전체적으로 민족의 역사와 해방 시국 자체만을 서술했다. 13구에 걸쳐 해방 소리에 가사를 짓는다는 서두에

A%B3%BC%EC%A0%9CID_ext%3aAKS-2011-EBZ-2104&dataID=AKS-2011-EBZ-2104_DES@0285(2020. 9. 30. 검색).「조선건국가사집」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저본으로 하여 DB화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자가 제법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조선건국가」,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경상북도 내방가사 조사・정리 및 DB 구축, http://waks.aks.ac.kr/dir/achieveView.aspx?secType=%EA%B3%A0%EC%84%9C%C2%B7%EA%B3%A0%EB%AC%B8%EC%84%9C&dirCate=&sType=&sWord=&fq=%ED%86%B5%ED%95%A9%EA%B3%BC%EC%A0%9CID_ext%3aAKS-2011-EBZ-2104&dataID=AKS-2011-EBZ-2104_DES@0188(2020. 9. 30. 검색). 원필사본은 업로드되지 않았다.

「조선건국가사집」, 대한민국역사박물관, http://www.much.go.kr/L/RLtvV75ucE.do(2020. 9. 30. 검색). 이곳에서 자료 열람과 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이본은 등사 방식의 옛날 활자본이다.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어색한 한자어구가 많아 억지로 한자화한 것이 역력하고, 우리말인데 한자로 옮기기도 하고, 쉬운 어구조차 한자로 썼다. 이 이본은 나중에 누군가가 한글본을 한자화하여 찍어낸 것이 아닐까 한다.

6) 다섯 이본 가운데 '조씨'로 되어 있는 것은 세 개이고 나머지는 '조시, 도씨' 등으로 되어 있다. '조시, 도씨' 등은 '조씨'의 오기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조씨' 문중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 11구에 걸쳐 민족의 역사를 간단하게 서술했다. 이어 경술합방과 순국자 및 해외망명자, 세계대전과 각종 공출로 인한 대한인의 고통, 징용・징병・보국대・의용대로 끌려가는 청년자제, 해방, 노인으로서의 기쁨을 서술했다, 이어서 해방 후 청년자제의 귀환, 해외망명자의 귀환, 건국에 대한 기원과 권고 등을 서술했다. "遠遊하든 여러분내 우리經歷 어이알리"라고 하면서 민족의 역사를 서술하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환국하는 장병과 망명자를 지향한 서술이 많다.

④ 〈ᄉᆞ국가ᄉᆞ〉

〈ᄉᆞ국가ᄉᆞ〉는 『규방가사 I 』에 활자본만 실려 전한다[7]. 미소군정에 대한 개탄에 이어 나라 건국에 대한 당부로 끝을 맺고 있어 창작시기는 1945년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가사의 서두에 "여보시오 친구임ᄂᆡ 이ᄂᆡ말ᄉᆞᆷ 드러보소"라는 구절과 가사의 마지막 즈음에 "아마도 이ᄉᆞ람은 공화정치 ᄌᆡ일조소 / 보시는 양반들은 보시고셔 비소마소"라는 구절이 있다. 작가가 자신을 '이사람'이라고 하고 가사의 독자를 '보시는 양반들'이나 '친구임ᄂᆡ'로 설정하고 있어 작가는 남성이라고 할 수 있다.

〈ᄉᆞ국가ᄉᆞ〉는 4음보를 1구로 계산할 때 총 220구이나 되어 비교적 장편에 속한다. 경술국치 이후부터의 역사와 해방 공간의 현실을 서술했다. 경술국치에 대한 개탄으로 시작하여 3・1운동과 일제의 탄압, 해외망명, 만주사변・지나사변・2차세계대전 등의 발발과 대한의 현실, 각종 물자공출에 대한 개탄, 징용자・보국대・학생・여성 등 사람 공출에 대한 개탄, 전쟁 막바지 일제의 소개 명령과 대한인의 고통, 해방과 대한인의 기쁨을 서술했다. 이어서 도적질・귀환 일인의 만행・동포귀환선의 침몰 등 해방 후 혼란한 시국, 소련 및 미국 군정에 대한 개탄, 나라 건국에 대한 당부 등을 서술했다.

---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자료편찬실, 『규방가사 I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614-622면. 이 책에 의하면 「ᄉᆞ국가ᄉᆞ」의 출처는 "경북 청도군 이서면 다곡리"이다. 같은 책, 614면. 『규방가사 각론』에 「ᄉᆞ국가ᄉᆞ」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다. 권영철, 앞의 책, 376면.

⑤ 〈희방환희가〉

〈희방환희가〉의 필사본은 한국가사문학관 홈페이지에 JPG 파일로 올라와 있다[8]. 해방 후 개천절을 맞은 기쁨과 망명인사의 귀국 및 환영을 서술한 후 건국에 대한 기대를 서술하여 창작시기는 1945년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가는 알 수 없으나, "여보소 동긔분내 우리도 대장부라"라는 구절로 보아 남성인 것은 분명하다.

〈희방환희가〉는 4음보를 1구로 계산할 때 총 161구이다. 태고, 단군조선, 조선으로 이어지는 민족의 역사는 아주 짧게 서술하고, 경술국치로 나라를 잃은 민족의 슬픔, 일제의 핍박 현실, 해방의 기쁨, 개천절의 기쁨, 망명 인사의 귀국과 환영, 새나라 건국에 대한 기대와 권고를 서술했다. 새나라 건국에 대한 기대는 집을 지어 입택하는 날의 흥겨움으로 서술하여 해방의 기쁨을 동시에 드러냈다.

⑥ 〈백의천ᄉᆞ〉

〈백의천ᄉᆞ〉는 「내방가사 조사, 정리 및 DB 구축」[9]에 활자본만 실려 전한다. 작품 말미에 '四二九二년 七월 八일 수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작품의 내용이 해방 이후 봄날의 감회를 서술하며 끝나고 있어 창작시기는 1946년 봄으로 추정된다. 〈백의천ᄉᆞ〉의 작가는 "망양정 해저문대 행구없는 배한척이 / 구세역군 담아싣고 방향없이 흘러간다"라는 구절로 보아 일단 망양정이 있는 경상북도 울진군에 사는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 한편 작가는 해방 후 여성 천지가 된 세상을 비판하면서 "오십넘은 안해라면 세상을 알었마는 / 철모르는 따님네와 파마머리 며는님내"라고 했다. 이 구절을 보면 남성의 입장

8) 「희방환희가」, 한국가사문학, http://www.gasa.go.kr/WService/Gasa/Bibliograph/OrgnImageViewer.aspx?Image=/contentfiles/dataorgnimage/verseinfodir/ab00203/n363_%uD574%uBC29%uD658%uD68C%uAC00%283%uBCF4%29_001.jpg&VerseID=V00003872&PageNum=1&EndNum=7&StartNum=1(2020. 9. 30. 검색).

9) 「백의천ᄉᆞ」,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경상북도 내방가사 조사·정리 및 DB 구축, http://waks.aks.ac.kr/dir/achieveView.aspx?secType=%EA%B3%A0%EC%84%9C%C2%B7%EA%B3%A0%EB%AC%B8%EC%84%9C&dirCate=&sType=&sWord=&fq=%ED%86%B5%ED%95%A9%EA%B3%BC%EC%A0%9CID_ext%3aAKS-2011-EBZ-2104&dataID=AKS-2011-EBZ-2104_DES@0080(2020. 9. 30. 검색). 원필사본은 업로드되지 않았다.

에서 여성에 대한 호칭을 붙였으므로 작가는 남성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작가는 경북 울진에 사는 남성으로 추정된다.

이 가사의 제목은 '백의천ᄉᆞ(흰 옷을 입은 천사)'인데, 정확한 의미는 가사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작가는 세한삼우의 절개를 칭송하면서 "힌옷입은 아녀자를 몇이나 울렸든고"라고 서술했다. 여기서 세한삼우는 절개를 지킨 독립운동가를 의미하므로 이것만을 보면 '흰 옷 입은 아녀자'는 독립운동가의 미망인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작가는 세한삼우와 관련하여 "근화동사나 백의들아 힌옷입은 뜻을알자"라고도 서술했다. 여기에서 '백의들'은 우리나라 사람 전체를 가리킨다. 한편 가사의 마지막에서는 나라의 운명이 배 한 척에 탄 청춘에 달렸다고 하면서 "비노니 되옵기를 백의천사 되어주소"라고 했다[10].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작가가 말한 '백의천사'는 '백의민족을 위한 애국자[천사]'를 의미한다.

〈백의천ᄉᆞ〉는 4음보를 1구로 계산할 때 총 127구이다. 전반부는 대한의 지세와 단군부터 대원군까지의 역사를 서술하고, 대원군의 실각과 함께 '나라도 다했다'고 하면서 근대기 여자 해방이 찾아왔음을 서술했다. 이어 일제강점기의 현실에 대한 서술 없이 곧바로 해방과 삼팔선, 해방 이후의 세태, 독립운동가에 대한 칭송, 봄의 감회, 건국에 대한 권고 등을 서술했다.

2) 해방과 개인 삶의 서술

해방의 기쁨과 함께 개인의 사연을 서술한 가사들이다. 이들 가사는 국내 체류자가 쓴 가사와 귀환자가 쓴 가사로 나누어 살펴본다.

---

10)「백의천ᄉᆞ」. "청암절벽 저노송은 만고에 한빛이니 / 군자지절 틀림없고 푸르는 저대잎은 / 천추에 차웠으니 열여지절 틀림없다 / 설중의 피는매화 년년세세 한뜻이니 / 힌옷입은 아녀자를 몇이나 울렸든고 / 대자연의 봄이와도 너를꺽지 못하였고 / 춘하추동 돌아가도 너를변치 못하려니 / 장하다 네절개여 귀엽도다 네뜻이여 / 세상사람 일으기를 세한삼우 일렀고나 / 열차타신 여러분들 세한삼우 본받오소 / 지토에 쿳이여도 금이었지 변하오며 / 형산에 백옥인들 빛이었지 변하릿가 / 근화동사나 백의들아 힌옷입은 뜻을알자"; "망양정 해저문대 행구없는 배한척이 / 구세역군 담아신고 방향없이 흘러간다 / 범범중류 떠나가니 저배장치 어찌될고 / 신들은 청춘에서 지향없는 방량이냐 / 여명의 항구에서 새로운 출발이냐 / 비노니 되옵기를 백의천사 되어주소"

(1) 국내 체류자의 해방

해방의 기쁨과 함께 개인의 사연을 서술한 가사 중 국내 체류자의 가사로 총 3편이 확인되었다.

① 〈히방후환히락가〉

〈히방후환히락가〉의 필사본은 한국가사문학관 홈페이지에 JPG 파일로 올라와 있다. "금연칠월 독립소식 진야몽야 반갑도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히방후환히락가〉의 창작시기는 1945년이다. 작가는 해외망명 독립운동가인 시아버지와 가족들의 환국을 기뻐하는 여성이다.

〈히방후환히락가〉는 4음보를 1구로 계산할 때 총 100구이다. 해방의 기쁨, 망명독립지사에 대한 고마움, 시아버지의 환국 소식과 시아버지에 대한 발원, 더딘 환국에 대한 감회, 시아버지・숙당・도련님의 환국과 기쁨, 미국 은덕에 대한 고마움, 해방의 기쁨, 건국에 대한 기쁨 등을 순서대로 서술했다.

② 〈원망가〉

〈원망가〉는 영천시에서 출간한 『규방가사집』에 활자본만 실려 전하며, 징병 관련 유형 연구에서 다뤄진 바 있다[11]. 작가는 〈원망가〉에서 해방이 되어 모두들 환국하는데, 추석이 되어도 자신의 남편만은 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 이 추석은 어느 해 추석일까? 작가는 '무인시월 염칠일' 즉 1938년 10월 27일에 15, 6세의 나이로 결혼하여 남편과 '사오년'을 살았다. 그러던 중 '기묘(1939)년'에 남편이 일본으로 끌려갔다고 했다. 여기서 작가가 1938년에 결혼하여 '사오년'을 살았는데, 1939년에 남편이 일본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가사의 또 다른 구절 '원수로다 대동아전쟁 그전쟁이 원수로다'에 의하면 작가의 남편은 1943년에 공포된 조선인징병제에 의해 강제로 대동아전쟁터로 끌려 간 징병자이다. 따라서 앞의 '기묘년'은 '계미(1943)년'의 오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12].

11) 영천시, 『규방가사집』, 도서출판 대일, 1988, 117-122면; 고순희, 「일제강점기 징병과 가사문학의 양상」, 『국어국문학』 제168집, 국어국문학회, 2014a, 179-202면.

12) 이 작품에서 정확하지 않은 서술은 다음의 구절에도 드러난다. 「원망가」. "어떤사람 팔자좋아 부모양친 묘서두고 / 부부화락 백년해로 이별없이 넘기는고 / 헛부다 내세월은 이팔방년 좋은시절

한편 작가가 가사를 쓸 당시 남편과 이별한 지 '어언 삼년'이 되었다고 했다[13].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원망가〉의 창작시기는 해방 직후인 1945년 가을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을 종합하면 〈원망가〉를 지을 당시 작가의 나이는 20대 초반 정도이다. 그리고 작가는 "영천읍내 기차성은 곁에같이 처량하와"에서 영천역의 기차소리가 들렸다고 했으므로 영천에 살았다. 따라서 〈원망가〉의 작가는 영천에 사는 20대 초반의 여성이다.

〈원망가〉는 4음보를 1구로 계산할 때 총 146구로, 일본의 전쟁터에 끌려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는 심정을 서술한 전형적인 신변탄식 류가사이다. 결혼과 화락한 부부 금슬, 남편의 일본행과 소식 돈절, 해방 후 남편의 무소식에 대한 감회, 남편을 만나는 꿈과 각몽 후의 감회, 하루하루 가는 세월, 칠월 칠석날의 감회, 추석의 감회 등을 차례로 서술했다.

③ 〈자탄가〉

〈자탄가〉의 필사본은 한국가사문학관 홈페이지에 JPG 파일로 올라와 있다. 이에 관한 해제와 활자본이 출간되었으며, 징병 관련 유형 연구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14]. 작가는 가사의 내용에서 스스로의 나이를 60세라고 밝히고 있으며, 아들 '만섭'이 지원병으로 차출되어 훈련을 받은 후 대구로 입영했다고 했다. 따라서 작가는 대구 인근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60세의 남성이다.

〈자탄가〉의 창작년도는 작품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작가는 아들이 갑신(1944)년에 사망했으나 해방 후인 병술(1946)년 3월이 지나서야 그 소식

/ 어이이리 더디든고" 밑줄 친 '이팔방년'은 액면 그대로 나이 16세를 말한다기보다는 '꽃다운 나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창작 당시 작가가 20대 초반으로 젊은 것은 분명하지만 16세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13) 「원망가」. "십오십육 가까워서 부모님의 은덕으로 / 무인시월 엽칠일에 서산가약 깊이맺어 / (…) / 승순군자 의지하고 사오년을 넘겼드니 / 기묘년은 무슨일로 나의액운 있었는가 / 천운이 불길한가 차돌에 바람들줄 / 어느누가 알았으랴 부모처자 이별하고 / 수천리 먼먼길에 일본인가 미지련가 / 꿈결같이 원별하니 춘몽중에 생시련가 / 진야몽야 못깨닫네 광음이 유수같고 / 세월이 여류하여 어언삼년 가까우니"

14) 「자탄가」, 한국가사문학관, http://www.gasa.go.kr/WService/Gasa/Bibliograph/DetailView.aspx?TopID=A&SubID=02&VerseID=V00001920(2020. 9. 30. 검색); 최한선・임준성, 「필사본 〈자탄가(自嘆歌)〉 해제」, 『고시가연구』 제28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373-401면; 고순희, 앞의 글.

을 듣게 되었다[15]고 했다. 그러면 작가는 해방 후 언제 〈자탄가〉를 지었을까? 작가는 갑신(1944)년 1월에 중국 전장터에 있는 아들에게 "너아달 낮다고서 일흠지어" 편지를 한 바 있는데, 이후 〈자탄가〉를 지을 당시 그때 낳은 손자 '주기'가 세 살을 먹었다고 했다. 과거에는 보통 햇수로 나이를 계산하였으므로 이 가사는 갑신년에서 햇수로 3년 후인 1946년에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자탄가〉의 창작시기는 작가가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은 직후인 1946년 봄경이다.

〈자탄가〉는 4음보를 1구로 계산할 때 총 389구나 되는 장편가사이다. 가사의 전반부에서는 아들이 지원병으로 중국에 끌려가 전장터에서 사망하기까지를 간략하게 서술했다. 아들의 농업학교 졸업, 아들의 결혼, 1942년 아들의 지원병 동원과 6개월 훈련, 1943년 10월 아들의 입영과 중국행, 1944년 윤사월 아들에게 편지, 아들의 전장 행로, 아들의 부상과 사망 등을 서술했다. 이후는 전형적인 신변탄식류가사로 이어지는데, 서술단락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들의 죽음을 애가 타게 슬퍼하는 작가의 심정을 서술했다. 300구가 넘는 구절 속에 해방 후에야 반혼한 슬픔, 죽을 줄 알았다면 사진도 박아 보낼 것 등의 후회, 일본에 대한 반감과 미소군의 활약, 전장에서 느꼈을 아들의 심정, 절기마다의 아들 생각, 아들 무덤 앞에서의 슬픔 등을 서술했다.

(2) 귀환자의 해방

해방의 기쁨과 함께 개인의 사연을 서술한 가사 중 해방을 맞아 환국한 귀환

15) 「자탄가」. "임오년 시월달에 자모한갑 잘치르고 / 지원병에 억제하여 사차불피 못면하고 / 결성으로 입소하야 육계월 훈련하고 / 계미년 시월달에 대구로 입영하야 / 일주일 훈련하고 흉지로 떤난후에"; "갑신 정월달에 너아달 낮다고서 / 일흠지어 편지할제"; "너간후 한달만에 순산으로 생남하야 / 주기라고 이름짓고 편지한장 하얐드니"; "갑십년에 죽으너을 을유년을 다지나고 / 병술년 삼월까지 날마다 바랄적에 / 어린손자 등에업고 문에서서 바래나니"; "악아악아 우리주기 불상하다 우리악아 / 세살먹은 너에몸이 아비구경 못해보고" 앞의 인용 구절에서 해결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앞의 구절에 의하면 손자 '주기'는 아들이 떠나간 지 한 달만에 태어났다. 그런데 아들은 "계미년 시월달에 대구로 입영하야 / 일주일 훈련하고 흉지로" 떠났다고 했으므로 아들의 탄생년도는 '갑신'이 아닌 '계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손자의 출생년도는 갑신이 되어야 앞뒤가 맞기 때문에 아들이 훈련 후 '흉지로 떠난' 실제 시기는 계미년 12월달 정도가 아닐까 한다.

자의 가사로 총 4편이 확인되었다. 이외 〈회심가〉가 만주로 추정되는 해외에서 30년을 살다가 고향(경주 양동마을)에 돌아왔으나 고향인의 박대에 서운해 하는 작가의 사연을 서술하여 해방 후에 환국하여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내용 가운데 해방의 기쁨을 서술한 부분이 전혀 없어 여기에서는 제외했다[16].

① 〈단동설육가〉

〈단동설육가〉의 필사본은 한국가사문학관 홈페이지에 JPG 파일로 올라와 있다[17]. 제목 '단동설육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작품의 필사 상태가 '설상가상'을 "설한강산"으로 적을 만큼 오기가 많아 이 제목도 오기일 가능성이 있다. 〈단동설육가〉는 만주에 살던 작가가 해방이 되어 고향에 돌아와 앞으로 살아갈 일을 서술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따라서 〈단동설육가〉의 창작시기는 1945년을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중에 "여자팔자 무산죄로 말리타향 이곳에서 이다지 고생하니", "예천땅 들어서니 찬문이들 형제가 / (…) / 집을향해 들어오니", "집을향해 들어오니 풍진노수 전여업고 / 어린것을 살펴보니 천한인생 면치못해" 등의 구절이 나온다. 따라서 작가는 예천에 사는 여성으로 제법 장성한 아들들과 어린 자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동설육가〉는 4음보를 1구로 계산할 때 총 106구이다. 전반부의 63구는 과거에 있었던 시동생과의 사연, 즉 땅 문제로 시동생을 찾아 설득하고 지서에서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면서 해결하기까지의 사연을 오고 간 대화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그런데 '찬기'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찬기모친 하는말이'와 같이 자신을 객관화하기도 하고 대화 당사자의 말이 어디에서 끝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여 가사의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기가 힘들다. 후반부의 43

16) 「회심가」는 영천시에서 출간한 『규방가사집』에 활자본으로 실려 있다. 영천시, 앞의 책, 187-189면. 작가는 여성으로, 부모를 따라 해외로 가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30년 가까이 타향살이를 했다. 작가는 타향살이 후 고향 양동마을에 돌아온 감회를 서술했는데, 고향인의 박대에 대한 서러움도 표현했다. "우리동긔 족하들도 고국을 환가ᄒᆞ여 부귀창승 누리그든"이라는 구절로 볼 때 작가가 고향으로 돌아온 시기가 해방 이후가 아닐까 추정은 되지만 확실치가 않아 제외한 것이다.

17) 「단동설육가」, 한국가사문학관, http://www.gasa.go.kr/WService/Gasa/BibliographDetailView.aspx?TopID=A&SubID=01&VerseID=V00001353(2020. 9. 30. 검색).

구는 만주에서의 감옥살이와 해방 후의 고향귀환을 서술했다. 작가는 만주봉천에서 돈을 벌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귀국길에 올랐다. 그런데 고향으로 오는 길에 "만아강 공골위"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이듬해 해방까지 수감생활을 했다. 이때 작가는 세 살 먹은 어린 자식을 떨쳐두어야만 했다고 했는데, 왜 만주에서 수감되었는지는 서술하지 않았다[18]. 이어 작가는 해방으로 출옥한 후 곧바로 귀환길에 올랐다. 기차로 4일만에 김천에 도착하고 고향땅 예천집으로 돌아와 앞날을 걱정하고 화목하게 살 것을 기원했다.

② 〈일오젼징회고가라〉

〈일오젼징회고가라〉의 필사본은 『역대가사문학전집』에 실려 있으며, 작품론도 이루어진 바 있다[19]. 작품의 서두는 "을유팔월 초팔이은 일오젼징 시초이라"로 시작하는데, 1945년 8월 8일은 소련이 대일선전포고를 한 날로, 따라서 제목의 '일오'는 '日露', 즉 일본과 러시아를 말한다. 만주 동포들의 입장에서는 일로전쟁 후 며칠 만에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일오전쟁'은 '해방'의 발단이 된 중대한 사건이었다. 작품의 말미에 "병슐[1946]이월필기ᄉᆞᆺ"이라 기록되어 있어 〈일오젼징회고가라〉의 창작시기는 1946년 봄이 확실하다.

〈일오젼징회고가라〉의 작가는 경북 봉화가 고향인 연로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알 수 없다[20]. 한편 작가는 영주역에 도착하여 "거년셧달 금은날의 작별ᄒᆞ든 엣터로다"라고 서술하여 만주로 이주할 당시

18) 「단동설육가」. "제산봉거 할라다가 고향산천 향할때에 / 만아강 공골위에 경찰이 조사하며 / 근사죄로 만든돈을 뺏앗아 노은후에 / 경찰서로 가자하니 여자팔자 무산죄로 / 말리타향 이곳에서 이다지 고생하니 / 예전에 서인말삼 갈소록 태산이요 / 설한강산 이라더니 이레두고 한말이다 / 세살먹은 어린자식 눈물흘려 떨쳐두고 / 날차지리 누가있나 사오일 굼고나니 / 엇지아니 서러우며 이러타시 지나니까 / 엄동설한 간곳업고 봄나춘이 닥쳐온다 / (…) / 이곳에 내가와서 감옥생활 원일인고 / 그럭저럭 지내다가 해방이 되었쓰니 / 옥문전 내달라서"

19)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제16권, 여강출판사, 1994, 436-468면; 고순희, 「만주동포귀환기 : 〈일오전쟁회고가〉」, 『한국시가연구』 제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187-213면.

20) 작품의 말미에 "병슐이월필기ᄉᆞᆺ"이라는 기록 다음 행으로 "가모"라는 기록이 부정확하게 필사되어 있다. 이것이 '家母'가 맞고 이 기록이 작가를 쓰고자 한 것이었다면 작가는 이 집안의 최고 어르신이었던 '노모'가 아닐까 한다. 그러나 작가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나 각 집단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도 세세한 일상사에는 무심한 편이어서 남성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나이가 많은 어른으로만 추정할 뿐이다.

영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갔음을 알 수 있다. 영주역의 개통은 1942년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작가의 만주 생활은 그리 오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21].

〈일오젼징회고가라〉는 4음보를 1구로 계산할 때 총 143구이다. 〈일오젼징회고가라〉는 한 동포가족이 1945년 12월 말경(양력)에 하얼빈 근처 북만주를 떠나 1달 23일만에 고향인 봉화 내성리에 귀환한 과정을 서술한 만주 동포 귀환기이다. 소련의 만주 공격, 해방과 혼란스러운 만주의 상황, 12월 말 북만주 출발, 하얼빈 도착과 기차표 구입, 걸어서 첫째 국경 월경, 기차로 봉천 및 안동 도착, 배로 둘째 국경 월경 및 신의주 도착, 기차로 사리원 도착, 걸어서 셋째 국경 월경, 기차로 개성 및 경성 도착, 기차로 안동 및 영주 도착과 고향 봉화 도착 등을 차례로 서술하면서 틈틈이 해방공간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감회도 서술했다[22].

③ 〈해방가(解放歌)〉

〈해방가(解放歌)〉는 문경시에서 간행한 『우리 고장의 민요가사집』에 활자본으로만 전한다[23]. 작가는 "기미[계미(1943)의 오기]년 유월달에 징용에 끌려가서" 해방이 되어 귀환한 강제 징용자이다. 이 가사는 문경시의 가사집에 실려 있으며, 작품 말미에 소장자일 것으로 추정되는 "점촌시 윤직동 김민규"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작가가 문경에 사는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 한편 내용 중에 "날같은 사람이야 부모형제 않게시니"와 "십여명의 가족

21) 영주에는 중앙선과 경북선이 연결된다. 중앙선 건설현황에 의하면 영주를 통과하는 안동에서 단양 구간은 1942년 2월 8일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경북선은 애초 김천에서 안동까지 가는 철도선으로 안동까지는 1931년 10월 18일에 영업을 개시했다. 1943년에서부터 1944년까지 점촌에서 안동까지의 선로를 철거하고 1966년에야 점촌에서 영주까지 잇는 철로의 영업을 개시했다. 철도청, 『한국철도 80년 약사』, 철도청, 1979, 63면, 82면. 작가가 영주역에서 이별하고 기차를 탄 것이 맞는다면 작가의 만주 이주는 영주역이 개통된 1942년 2월 8일 이후가 된다.

22) 여기서 '첫째 국경'이란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점령 경계를 말한다. 그리고 '둘째 국경'은 중국과 대한의 국경을 말하고, 셋째 국경이란 삼팔선을 말한다. 작가는 38선을 넘어오는 코스 중에서 당시 귀환민이 제일 많이 이용한 코스로 넘어왔다. 사리원 → 해주 방면 기차 → 학현 하차 → 도보 월경 → 청단 도착 → 기차 → 개성의 코스였다. 20-24킬로의 산길을 걸어 와야 하긴 했지만 밤 한나절이면 넘을 수 있어서, 경성 사람들은 해주 방면 월경자를 그 말끔한 차림새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森田 芳夫, 「북한의 우수」, 『대동아전쟁비사 한국편』, 한국출판사, 1982, 167-168면.

23) 문경문화원, 『우리 고장의 민요가사집』, 鄕土史料 제10집, 문경문화원, 1994, 219-228면.

으로 칠팔개월 그사이에 한푼돈 버리없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렇게 작가는 부모형제는 없으나 딸린 가족이 십여 명이나 된다고 했으므로 아마도 손자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작가는 강제징용 되었다가 귀환한 자로 문경지역에 사는 중년의 남성으로 추정된다.

작가는 귀환한 후 별다른 벌이도 없이 '7-8개월'을 살았다. 그리고 가사의 마지막 즈음에 봄날을 맞이하여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는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서술했다. 따라서 〈해방가〉의 창작시기는 작가가 귀환한 지 7-8개월이 지난 1946년 봄이다.

〈해방가〉는 4음보를 1구로 계산하여 총 274구나 되는 장편가사이다. 〈해방가〉는 내용이 다소 산만한 편이다. 전반부의 88구는 해방과 작가의 사연을 서술했다. 징용과 해방, 부산항 당도의 감회, 굶주린 배를 채움, 침몰한 귀환동포에 대한 감회, 귀환일행과의 이별, 귀환동포를 겨냥한 각종 사기에 대한 한탄, 부산역 기차 승차, 귀환동포의 서러운 처지, 귀환 후 작가의 생활고 등을 차례로 서술했다. 중반부의 122구는 해방 후의 세태에 대한 작가의 개탄과 권고를 서술했다. 부자들의 행태에 대한 개탄, 조선인 전체를 향한 경계의 말, 건국 매진에 대한 권고, 교육 받은 여자・청년들・부부・첩을 둔 남자의 행실에 대한 개탄 등을 서술했다.

후반부의 64구는 먼저 28.5구에 걸쳐 봄날에 만끽하는 해방의 기쁨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서술했다. 그런데 가사의 마지막은 35.5구에 걸쳐 여성의 신세한탄을 서술했다. 이전의 서술이 여성의 꽃놀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성의 신세한탄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가사의 전체적인 내용과는 매우 동떨어진다.

④ 〈춘풍감회녹〉

〈춘풍감회녹〉의 필사본은『영남학』제9집에 영인되어 있으며, 활자본도 같은 책에 실려 있다[24]. 가사의 말미에 "경히 윤이월 김즁욱 씀"이라는 기록이

24) 백두현,「일본군에 강제 징병된 김중욱의 〈춘풍감회록〉에 대하여」,『영남학』제9호,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6, 419-470면. 같은 글, 431-446면에 활자본이, 같은 글, 447-470면에는 필사본이 영인되어 실려 있다.

있고, 가사의 내용 중에 "갑신연 츄칠월에 남에쌈에 칼을쌔여"라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춘풍감회녹〉을 소개한 백두현은 '이 필사본의 출처가 봉화이므로 김종욱은 봉화 사람인 듯하다'고 했다[25]. 따라서 〈춘풍감회녹〉의 작가는 1944년에 강제로 징병되었다가 생환한 김중욱으로 봉화 사람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김중욱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작가가 징병되어 집을 떠날 때 "부모쳐ᄌᆞ ᄉᆡᆼ별ᄒᆞ고"라고 했으므로 '부모처자'를 둔 기혼 남성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춘풍감회녹〉의 창작시기는 작가가 해방되어 고국에 돌아온 후 어느 정도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난 1947년 봄이다.

〈춘풍감회녹〉은 4음보를 1구로 계산할 때 총 176구이다. 〈춘풍감회녹〉은 작가가 1944년 "츄칠월"에 징병으로 차출되어 중국의 전쟁터를 떠돌다 해방이 되어 고국에 도착하자마자까지를 서술했다. 소속 군대가 거쳐간 각지의 경관이나 역사지를 많이 서술하여 언뜻 보면 중국기행가사로 보일 정도이다. 서두에서 징병 차출과 고국이별의 감회를 간단히 서술한 후 이후는 중국에서 겪은 전투경험을 서술했다. 작가는 안동현, 봉천, 산해관, 천진 등을 거쳐 보름만에 창주에 도착하여 전투에 참가했다. 이어 12월 중순에 남경을 거쳐 무창 등을 지나 1945년 3월에 '백석'에 둔을 쳤다. 그런데 작가는 이곳에서 일본군을 탈영했다. 탈영한 작가는 굶주린 배를 안고 한 마을에 이르러 도움을 받고 중국 병부를 찾아가 중국군과 1개월을 지내다가 일군과의 접전에 투입되어 반년을 싸웠다. 드디어 해방이 되자 작가는 상해에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도착했다.

3. 문학적 의미 : 당대적 다큐멘터리

해방 공간을 살아간 이들의 삶과 인식을 담은 문학 작품은 대부분 해방이 한참 지난 뒤에 쓴 것들이다. 그에 비해 이들 가사는 해방 직후의 공간을 마주하고 살았던 당대인이 쓴 것들이다. 이들 가사문학은 소박하기 짝이 없는 4음보 연속의 단순한 형식에 생각나는 대로 적어내려 갔음직한 내용들을 담

25) 이 가사를 소개한 백두현은 "이 가사집의 출처가 경상북도 봉화라 하니 김중욱은 봉화가 고향인 듯하다."고 했다. 같은 글, 422면.

고 있기 때문에 후대인의 해방 공간에 대한 문학에 비해 문학적 수월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들 가사는 해방 공간을 살아간 당대의 작가들이 해방 공간에서 느낀 감회, 해방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서술함으로써 후대의 작품이 지니지 못하는 당대성을 지닌다. 이렇게 이들 가사는 당대인이 당대를 서술함으로써 당대의 다큐멘터리로 기능한다는 문학적 의미를 지닌다. 이들 가사가 지니는 다큐멘터리로서의 문학적 의미를 첫째, '해방 공간을 살아간 개인의 다양한 삶 반영'과 둘째, '해방 공간을 바라본 당대인의 시각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해방 공간을 살아간 개인의 다양한 삶 반영'의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개인의 삶을 서술한 가사 가운데 국내 체류자가 쓴 가사들은 일제강점기에 오랜 세월 나라를 위해 활동한 해외망명 독립운동가나 강제로 징집되어 일본을 위해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간 징병자를 둔 가족의 삶을 반영했다. 〈희방후환히락가〉는 미국 방면으로 망명하여 30년간이나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 가족이 환국하는 사연과 그들의 독립운동 활동을 존경하며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며느리의 삶을 반영한다. 〈원망가〉는 징병으로 끌려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사무치게 기다리는 한 여인의 삶을 반영한다. 〈자탄가〉는 징병으로 끌려가 중국 전장터에서 사망한 아들의 죽음을 늦게서야 통보 받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한 아버지의 삶을 반영한다.

개인의 삶을 서술한 가사 가운데 귀환자가 쓴 가사들도 그야말로 파란만장하다고 할 정도의 다양한 삶을 반영했다. 〈단동설육가〉는 해방 전에 시동생과의 땅다툼 뒤에 만주로 갔다가 해방 직전에 고향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만주에서 경찰에게 붙잡혀 수감생활을 하다 해방으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한 여성의 삶을 반영한다. 〈일오젼징회고가라〉는 만주에 살다가 해방이 되어 3개의 국경을 천신만고 끝에 넘고 1달 23일 만에 고향에 도착한 만주동포 귀환자의 삶을 반영한다. 특히 이 가사는 북만주에서부터 봉화까지 도착하는 여정과 그때그때의 감회를 서술함으로써 그야말로 만주동포의 고국귀환 다큐멘터리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해방가〉는 해방이 되어 겨우 밀선을 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푸

대접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사는 징용 귀환자의 삶을 반영한다. 〈춘풍감회녹〉은 징병으로 일군에 편입되어 중국 전장터에서 싸웠으나 탈영을 감행한 후에는 중국군에 편입되어 일제에 맞서 싸운 한 징병자의 삶을 반영한다.

한편 해방 공간의 시국 자체만을 서술한 가사 6편은 각 작가의 삶을 전혀 서술하지 않았지만 이들 가사의 존재 자체가 해방 공간을 살아간 한 유형의 삶을 반영한다. 이들 가사는 해방 공간을 마주한 당대인들 가운데 일제강점기를 살아온 극심한 고생을 생각하며 반일감정을 키우기도 하고, 국내외 독립운동가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도 하고, 해방 후 전개되는 시국과 세태를 개탄하기도 하고, 건국에 대한 기대 속에서도 우려하며 지낸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특히 이 가운데 길이가 긴 〈한인사〉, 〈조선건국가〉, 〈ᄉᆞ국가ᄉᆞ〉, 〈ᄒᆡ방환희가〉 등 4편의 작가는 그간 자행되었던 일제의 가혹한 물적·인적 공출을 고발하고 그로 인한 대한인의 고통을 핍진하게 서술함으로써 반일감정을 극대화하여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했다.

이렇게 다양한 삶을 반영하고 있는 이들 가사에서 알 수 있는 바는 해방 공간에는 기쁨에 젖어 있는 사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감정을 혼재하여 지닌 사람도 많았다는 것이다. 당시 나라 전체는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며 들떠 있는 분위기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지난날의 아픈 역사와 그로 인한 경험을 상기하며 새로운 국가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 지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안의 어른이 무사 귀환하거나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와 즐겁고 희망적인 분위기에 빠져 있기도 했다(〈ᄒᆡ방후환히락가〉, 〈춘풍감회녹〉),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떤 사람은 끝없는 슬픔이나 불안 속에 빠져 있기도 했는데, 남편과 아들의 부재나 사망으로 슬픔 속에 젖어 있기도 하고(〈원망가〉, 〈자탄가〉), 생활고로 자식들과 살아갈 일에 대한 걱정에 빠져 있기도 하고(〈단동설육가〉), 생활고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해방의 세태에 대한 불만에 빠져 있기도(〈해방가〉) 했다.

다음으로 '해방 공간을 바라본 당대인의 시각 반영'이라는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해방 공간의 시국 자체만을 서술한 가사 6편과 개인의 삶을 서술한[26] 〈ᄒᆡ방후환히락가〉와 〈해방가〉는 해방 공간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

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의 해방은 연합군의 승리로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에는 3·8선이 그어지고 남과 북에 미소군정이 들어섰다. 그리하여 이들 가사 중에는 해방의 기쁨을 서술하면서 "영미소즁 사개국이 해로에 회담하야 / 조선땅을 분리하야 독립식힐 의론햇네"(〈한인사〉)와 같이 연합군의 역할과 미소군정에 대해 사실 그대로만을 서술한 가사도 있었다.

하지만 많은 가사는 3·8선과 미소군정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백의천ᄉᆞ〉에서는 나라를 둘로 갈라놓은 3·8선에 대해 개탄했으며, 〈일오젼ᄌᆡᆼ회고가라〉에서는 3·8선에 대한 개탄과 아울러 "양호투한 이시졀의 악차ᄒᆞ며 노에ᄃᆡᆫ다"와 같이 미소군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27]. 3·8선과 미소군정에 대해 반감을 드러낸 〈ᄉᆞ국가ᄉᆞ〉의 구절을 인용해본다.

> 해방된후 얼마후에 연합군인 상육한다 / 우리조션 활반하야 북ᄌᆞᆨ은 노국군인 / 남ᄌᆞᆨ은 미국군인 ᄎᆞᄅᆡ로 상육하ᄂᆡ / 우리조션 무ᄉᆞᆫ일노 한나라로 활반하ᄂᆞ / 이것시 이ᄉᆞᆼ하고 연합군도 욕심이지 / 북ᄌᆞᆨ은 모를지나 남ᄌᆞᆨ을 볼ᄌᆞᆨ시면 / 팔쳑신ᄌᆞᆼ 노랑머리 높푼코 깁푼눈을 / ᄉᆡ력을 ᄌᆞ랑노라 애기행행 왕ᄂᆡ하ᄂᆡ / 군졍하려 나와서며 일본군인 무ᄌᆞᆼ해ᄌᆡ / 조션ᄉᆞ람 ᄉᆡᆼ명ᄌᆡ물 치안이라 할것이지 / 졍치애 ᄲᅳᆺ을두고 내졍간습 무ᄉᆞᆫ일고 / 연합군애 득택으로 ᄌᆞ유해방 식혀시며 / 졍치나 간습하것 졈잔히 다니다가 / 고요히 도라가며 졍당ᄒᆞ다 할것신되
>
> — 〈ᄉᆞ국가ᄉᆞ〉

위에서 작가는 3·8선과 미군정을 통렬하게 개탄했다. 작가는 해방이 되자마자 북쪽에 소련군이, 그리고 남쪽에 미군이 상륙한 것이 '이상하다'고 하

---

26) 개인의 삶을 서술한 가사 중에서 「원망가」와 「자탄가」는 징병되어 돌아오지 않는 남편과 사망한 아들을 생각하는 데에, 「단동설육가」는 해방 전후에 겉친 자신의 사연을 말하는 데에, 그리고 「춘풍감회녹」은 징병되어 참가한 전투 경로와 현장을 전달하는 데에만 서술이 집중되어 해방 공간에 대한 작가의 시각이 드러나지 않는다.

27) 「백의천ᄉᆞ」. "마슬의 삼팔선을 누구가 만들었나 / 관리도 백성도 어른도 아해들도 / 백두산 신령님도 지리산 까마귀도 / 까맛게 몰랐그던 어대에서 만들었나 / 일시동인 우리동포 두나라도 갈라놓고"; 「일오젼ᄌᆡᆼ회고가라」. "조곰만한 조선쌍이 남북으로 갈엿스니 / 고토을 차져온들 몸둘곳시 바이업ᄂᆡ / 삼십팔도 국경션은 만쥬보다 더심하다 / ᄃᆡ한사람 ᄃᆡ한으로 불원쳘이 왓근만안 / 쳘망느린 국경션을 무삼슈로 ᄭᅵ틀일가 / (…) / 삼쳘이 금슈강산 삼십팔도 원말삼가"

면서 이것이 연합군의 욕심이 아니냐고 했다. 작가는 남쪽의 미군이 기괴한 모습을 하고 세력을 자랑하려 여기저기를 왕래한다고 서술하여 미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드러냈다. 작가가 보기에 군정이라면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키고 '조선사람'을 지키는 치안만 담당하면 될 것이고,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나라가 해방되어 그 탓에 미군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이므로 미군은 점잖게 있다가 돌아가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미군은 우리나라의 정치에까지 끼어들어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강한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드물지만 미국은덕과 보은을 서술한 가사도 있다. 〈히방후환히락가〉의 경우 작가는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한 시댁 식구의 환국을 기다렸기 때문인지, "미국보은 ᄒᆞ올적이 ᄌᆞ손이 유익ᄒᆞ고 / ᄉᆡᄉᆡ불망 ᄒᆞ압소서 오날날 미국은덕 / ᄐᆡ산이 가부압다"라고 하여 특별히 미국의 은덕을 서술하기까지 했다. 작가가 '미국은덕이 태산보다 무겁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미군정도 환영했을 것이 뻔하다.

이들 가사의 해방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특이한 점은 해방의 공을 해외망명 독립운동가, 특히 미국망명 독립운동가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삼십여년 객지에서 독립운동 하든분을 / 사개국에 조력하니 그분들의 성공일세"(〈한인사〉), "이덕이 뉘덕인고 성공ᄒᆞ신 이양반들 / 부도쳥ᄉᆞᆫ 다ᄒᆞ리고 각국이 히ᄉᆞᆫᄒᆞ여 / ᄉᆞᆷ십육연 이동안을 피쌈을 흘리면서 / 기포을 무호시고 동립성공 바다ᄂᆡ여"(〈히방후환히락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독립운동가보다는 해외망명 독립운동가에, 그리고 해외망명 독립운동가 중에서는 만주보다는 미국 망명독립운동가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환국하는 해외망명 독립운동가에 대한 찬사는 이들을 건국의 주체로 기대하는 데까지 이르기도 했다. 이 점을 포함하여 해방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선건국가〉를 인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잇대애 英雄志士 入山蹈海 멸멸이고 / 父母妻子 다바리고 古國山河 離別하고 / 손목잡고 눈물흘려 西北으로 헐어저서 / 萬里을 咫尺같이 初行露宿 不計하고 / 復國情神 품에품고 海外各國 鳴寃하니 / 壯할시고 壯할시고 誰某誰某 壯할시고 / (…) / ②나오시네 나오시네 海外先輩 나오시네 / 太極旗 손에들고 國歌을 合唱하

니 / 듯는者 拍手하고 보난者 뛰고노네 / 怨讐도로 恩人되고 먹은마음 다풀린다 / 높으도다 높으도다 海外僉位 높으도다 / 有志者 事竟成은 今日이야 보겟구나 / (…) / 이와같은 오늘날을 準備한지 몇몇해요 / 銃劒가진 子弟들을 앞서우고 뒤셔와서 / ③西洋文化 배에실고 朝鮮땅 돌아설제 / 우리民族 數가불어 三千萬이 되얏구나 / 太平洋 건너서서 大朝鮮 將來事業 / 우리들의 雙肩上에 무겁게 가치실고 / ④億萬年 坦坦前途 이집을 再建하니 / 仁義禮智 터를닦아 三綱五倫 지추박고 / 孝悌忠信 立柱하야 平和主義 大樑언저 / 士農工商 窓戶달고 法樂刑政 장치한後 / 四大門을 通開하고 治安經濟 文明發展 / 萬國瞻視 羞恥없이 하로밥이 進行하소

— 〈조선건국가〉

위의 ①에서 작가는 경술국치 후 '영웅지사'가 '복국정신'을 품고 '서북으로' 흩어져 '해외각국'에서 장한 일을 했다고 칭송했다. 여기서 작가는 해외망명 독립운동가로 만주망명 독립운동가도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에서 작가는 해외망명 독립운동가가 평생을 해외에서 천신만고의 고생을 하다 환국하게 되었음을 칭송했다. 그런데 ③에서 작가는 미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가 "西洋文化 배에실고 朝鮮땅"으로 "太平洋 건너" 환국했다고 하면서 이들이 "大朝鮮 將來事業"을 같이 짊어지고 갈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작가는 환국하는 미국망명 독립운동가를 건국의 주체로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해외망명 독립운동가들이 속속 환국하는 해방 공간에서 주로 미국 쪽 해외망명 독립운동가가 환영을 받으며 해방의 공을 차지했던 당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③에서 살펴보았듯이 작가는 서양문화를 수용하여 새나라를 건국하자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새나라를 건국할 때 서양의 문화와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백의천ᄉᆞ〉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사에서 드러난다[28]. 그런데 위의 ④에서 작가는 건국을 집짓기로 비유하며 집짓기에 필요한 여러

28) 미군정을 비판한 바 있는 「ᄉᆞ국가ᄉᆞ」의 작가도 "무식ᄌᆞ를 업시하고 영국방면 힘을셔셔 / 셔양나라 쏜을바다 세계각국 되어보ᄉᆡ"라고 하여 새나라의 건국에 서양문화와 문명의 도입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그리고 「ᄒᆡ방환회가」의 작가도 "삼천만 우리ᄊᆡ리 협심동력 집을짓새 / 각국문화 시러다가 (…) 민주의 벽을하여 / 오대양 륙대해주로 채색을 올인후에"라고 하여 해외문화의 도입에는 개방적이었다. 반면 「백의천ᄉᆞ」의 작가는 해방 이후의 시국을 비판하며 "삼강오륜 인간본위 민주주의 빼서가고 / 사대오상 좋은풍속 자유두자 훔쳐가고"라고 하여 외래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자유를 못마땅해 하고 있어 서양문화와 문물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특별히 인의예지, 삼강오륜, 효제충신 등과 같은 봉건적인 가치를 지닌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작가가 서양의 문화와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구상하는 나라가 새나라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방 시국을 유교적 가치관을 담보한 용어를 통해 바라본 점은 해방 공간에서 창작된 이들 가사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다[29]. 이 점이야말로 이들 가사 작가의 인식 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가사의 작가에게 새나라는 아직까지도 '백성과 임금님으로 구성된 조선'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의 은덕을 칭송하기까지 한 〈히방후환히락가〉에서 작가가 말한 새나라는 왕과 신하가 모인 조선 대궐을 배경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가사가 관습적인 글쓰기 안에서 창작되었으므로 이전의 관습적인 용어가 그대로 쓰였다는 점과 이들 유교적 가치가 시대를 초월한 절대 '선'의 가치라는 점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는 명제에 따르면 이러한 봉건적인 용어는 작가의 사고가 봉건성의 자장 안에 머물러 있다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들 작가가 해방 공간을 바라본 시각은 기본적으로 봉건성의 자장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다.

이들 작가의 봉건성은 해방 공간의 세태를 비판할 때, 특별히 여성의 세태에 대해 비판할 때 비판의 날이 더욱 서 있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징용귀환자인 〈해방가〉의 작가는 경술합방 이후로 차차 남자와 여자가 차등 없이 지내는 남녀평등의 시대가 왔음을 서술하기도 했으며[30], 가사에서 특별히 여성의 행

29) 「히방환회가」. "집짓기 극난이라 삼천만 우리끼리 / 협심동력 집을짓새 각국문화 시러다가 / 취장거단 하여두고 어긔여차 집을짓새 / 부동평화 줏초놋코 충신열사 입주하고 / 삼강오륜 대들보애 인에예지 혓가래에 / 사농공산 긔와덥고 법악형정 문을다라 / 응시개문 법을직혀 텬되를 발켜노코 / 국태미난 구들노코 민주의 벽을하여 / 오대양 륙대해주로 채색을 올인후에 / 무궁화 장석하야 옛풍물을 이절소야"; 「히방후환히락가」. "넉넉ᄒᆞ신 ᄃᆡ궐안ᄋᆡ / 명쥬현신 모여안ᄌᆞ 팔진도 걸려녹코 / 문부로 이논ᄒᆞᆫ이 거록ᄒᆞᆷ도 거록ᄒᆞ다 / 만ᄉᆡ만ᄉᆡ 만ᄉᆡ라 우리조선 만만ᄉᆡ라"; 「일오젼징회고가라」. "당파싸옴 그만두고 ᄇᆡᆨ셩들을 단결식여 / 한님금을 셤길지며 ᄉᆡ기강국 ᄃᆡ리로다 / 엣날국ᄉᆞ 살펴보며 남인북인 당가르니 / 희망조션 오날날도 당파싸홈 일삼는가 / 나라위희 죽은목슘 불근피을 흘여건만 / 독입이후 근일연의 임금님은 어ᄃᆡ간고"; 「백의천ᄉᆞ」. "삼강오륜 인간본위 민주주의 빼서가고 / 사대오상 좋은풍속 자유두자 훔쳐가고 / 남여유별 좋은예의 동동권이 아서가고 / 수지부모 좋은머리 파마넨트 잘라먹고"

30) 「해방가」.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구별 심히마라 / 대소사를 막론하고 시속을 따라가면 / 오는

태만을 비판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는 작가가 비판하고 있는 남성의 행태는 모두의 비판을 받아 마땅한 내용들이었지만, 여성의 행태는 마냥 비판을 받아 마땅한지 의문이 드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작가는 교육을 받은 여자들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언어가 남자를 압도하고, 아는 체를 하고, 단발을 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가장에게 조심하지 않고, 시장 출입을 자주 하고, 주점에도 찾아가고' 등등을 나열했다[31]. 이렇게 작가가 여성의 행태로 비판한 내용들을 보면 작가가 여자의 동등권을 인정한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아직 여성에 대한 봉건적인 인식에 갇혀 있다고 할 수 있다. 〈백의천ᄉᆞ〉의 경우 더욱 노골적으로 여성의 행태를 비판했는데, 구절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다.

> 삼강오륜 인간본위 민주주의 빼서가고 / 사대오상 좋은풍속 자유두자 훔쳐가고 / 남여유별 좋은예의 동동권이 아서가고 / 수지부모 좋은머리 파마넨트 잘라먹고 / 단순호치 좋은입술 뿔근물이 왠일인고 / 네부모 내부모는 벙어리등 되어있고 / 네안해 내안해는 장돌뱅이 판을치고 / 네아들 내아들은 도적놈다 다되었고 / 네딸도 내딸도 양갈보 틀림업다 / 웃음의 말이오나 사실인것 엇찌하나 / 논팔아 배운자식 삼강을 헤이라면 / 압록강 대동강을 이심없이 해여내고 / 조상의 기일이라 지방을 쓰라며는 / 사각모자 아들양반 거주성명 써붙인다 / 시대의 죄이런가 부모의 죄이런가 / 큰도시 거리에는 여자로 체워있고 / 한달육장 촌시장도 여자천지 되었고나 / 젊은자식 군에가고 한집식구 열이며는 / 칠팔은 여자되니 여국나라 이아니냐 / 오십넘은 안해라면 세상을 알었마는 / 철모르는 따님네와 파마머리 며는님내 / 자유피도 쌍철우에 해방포를 타가지고 / 급행열차 올랐으니 장치일을 어찌할고
>
> — 〈백의천ᄉᆞ〉

행복 바라나니 이아니 좋을손가"

31) 「해방가」. "남자행적 여차하니 여자행적 들어보소 / 규중에 깊이앉아 침선방직 일을삼고 / 외인교재 전혀없어 남녀유별 극진타가 / 경술년 합방후로 차차로 개명하여 / 노력도 같이하고 교육도 같이하여 / 삼천만이 넘는동포 여자라고 이름없고 / 이와같이 동등권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 차등없이 지날때야 여자생각 어기는 듯 / 교육받은 여자들은 이른행동 하난법가 / 언어교제 하는일이 남자를 압도하고 / 주책없는 여자들은 몰라도 아난체로 / 못난것도 잘난체로 안하에 무인이라 / 생이빼고 금이하고 당장머리 단발하고 / 부모에게 불효하고 가장에게 조심없이 / 친척까지 불목하니 어너가정 물론하고 / 우의있게 지내자면 여자의무 무겁나니 / 여차하온 여자들은 행실인들 온당하랴 / 제멋을 못이기어 상하촌을 다니면서 / 이간하기 일을삼고 시장출입 심하오니 / 이골목도 여자싸움 저골목도 여자음성 / 눈이시여 볼수있소 주점에도 찾아가서 / 술마시고 취정하니 그가정이 어찌되며"

위에서 작가는 삼강오륜, 사대오상, 남녀유별 등이 인간본위, 좋은 풍속, 좋은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자유, 동등권에게 이것들을 빼앗겼다고 했다. 작가가 봉건적인 가치관에 상당히 매몰되어 있어 이미 사회적으로 정립된 근대적인 가치관조차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작가는 당시의 세태를 비판했는데, 남성의 행태에서보다 여성의 행태에서 매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음이 드러난다. 여성의 파마머리와 입술화장을 개탄하고, "네딸도 내딸도 양갈보 틀림업다"라고 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그리고 큰 도시의 거리와 시장에 여자 천지가 되었음도 못마땅하게 여겼다. 작가의 봉건적인 가치관으로는 당시의 여성 행태가 도저히 볼 수 없는 꼴불견이었던 것이다.

4. 맺음말 : 가사문학사적 의의

해방 공간에서 역사·사회에 대응한 가사문학은 13편이나 창작되었다. 총 13편의 가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8편이 해방 직후에 창작되었으며, 1946년에 4편이 창작되고 제일 마지막에 창작된 〈춘풍감회녹〉조차 1947년 봄을 넘기지 않고 창작되었다. 해방 후 불과 1년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13편이나 되는 역사·사회에 대응한 가사문학이 창작된 것이다.

이렇게 해방 공간에 대응하여 당대성을 담보한 가사의 많은 창작은 생활문학으로 존재하는 가사문학의 장르적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사문학의 작가들은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역사사회 현실, 자신이 겪은 경험, 자신이 처한 신세, 주변의 경관 등 당대의 모든 것을 가사문학에 담았다. 그리하여 가사문학은 생활문학의 하나로 존재하면서 늘 당대성을 지닌 문학으로 기능해왔다.

해방 공간에 대응하여 창작한 가사들은 이러한 가사문학의 장르적 전통을 계승하여 창작될 수 있었다. 해방 시국 자체만을 서술한 가사 작품군은 작가가 주로 객관적인 역사·사회 현실에만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대부분 역사서술가사, 현실비판가사, 우국개세가사, 교훈가 등을 혼합한 형태로 나타났

다. 반면 개인 삶을 서술한 가사 작품군은 주관적인 개인의 사연을 중심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신변탄식류가사, 노정기나 기행가사, 우국개세가사 등 가운데 어느 한 유형을 두드러지게 지니거나 이것들을 혼합한 형태로 나타났다. 해방이라는 초유의 민족적 사건에 대응하여 가사문학의 다양한 서술 유형이 모두 동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해방 공간에서 기존의 가사 유형을 활용한 많은 가사가 창작될 수 있었던 것은 가사문학의 창작과 향유가 당시까지도 활발하게 지속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가사문학사에서는 시기적으로 근대기 이후부터를 '가사문학의 쇠퇴기'로 설정했다. 이러한 가사문학사의 시기설정은 근대기에 전통형식을 변형한 매체게재가사가 출현하여 가사의 마지막 기능을 수행한 후 가사문학이 그 생명력을 잃게 되었다는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부터 해방까지의 시기만 따져 볼 때 일단 쇠퇴기라고 하는 시기 설정이 무색할 정도로 수천 편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의 가사가 창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수천 편의 가사 중에는 기존의 가사 유형을 관습적으로 추수하여 천편일률적인 내용을 담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족적인 최대의 위기에 대응하여 당대성을 담보한 의미 있는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던 것이다.

경술국치 후 1910년대에만도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은 가사 작품이 총 25편이나 창작되었다. 경술국치가 이루어지자 곧바로 은거를 택한 작가는 〈은사가〉, 〈입산가〉, 〈개세가〉, 〈노경긔라〉 등의 가사를 창작했다. 그리고 만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와 관련한 작가들은 〈분통가〉, 〈히도교거ᄉᆞ〉, 〈정화가〉, 〈간운사〉, 〈조손별서〉, 〈정화답가〉, 〈위모사〉, 〈원별가라〉, 〈송교행〉, 〈답사친가〉, 〈감회가〉, 〈별한가〉 등의 가사를 창작했다. 한편 경술국치 후 고향에 머문 작가들은 일제강점의 현실을 개탄하고 독립의지를 고취한 〈고국가라〉, 〈경세가〉, 〈시절가〉, 〈대한복수가〉, 〈인산가〉, 〈자심운수가〉, 〈애자가〉 등의 가사를 창작했으며, 조선, 가문, 의병의 역사를 서술한 〈한양가〉, 〈문소김씨세덕가〉, 〈신의관창의가〉 등의 가사도 창작했다.

이후 일제강점기 말까지도 역사·사화 현실에 대응하여 일제의 폭정 현실

을 비판하거나 그러한 현실로 인해 왜곡된 자신의 삶과 감회를 서술한 가사 작품이 많이 창작되었다. 1920년대에는 한 독립운동가가 옥중에서 쓴 〈옥중가〉가 창작되었으며, 〈망월가〉, 〈이강슈포한가라〉, 〈자탄가〉, 〈몽유가〉, 〈산촌향가〉, 〈일월산가〉, 〈세덕가〉, 〈인곡가〉, 〈장탄곡〉 등 당대의 역사사회 현실에 대응한 가사 작품이 창작되었다. 1930년대에는 〈명륜가〉, 〈생조감구가〉, 〈현생비극가〉, 〈망월사친가〉, 〈을해춘가〉, 〈조부인귀정회고가〉 등 당대의 역사사회 현실에 대응한 가사 작품이 창작되면서, 유학이나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일본 경험과 관련한 〈사향곡〉, 〈망향가〉, 〈사향가〉, 〈원별회곡이라〉, 〈부녀자탄가〉 등이 창작되었다. 일제강점기 말인 1940년대에는 대동아전쟁으로 물적 인적 공출로 시달리는 대한의 현실을 담은 〈만주가〉가 창작되었으며, 일제에 의해 강제로 시행된 징병의 현실과 관련하여 해방 이전에 〈망부가〉와 〈사제곡〉이 창작되었다[32].

해방 공간에 대응하여 창작한 13편 가사문학의 전개 양상은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아 1910년대에 창작한 25편 가사문학의 전개 양상과 닮아 있다. 모두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응하여 가사문학이 창작의 열과 힘을 활발하게 발휘했다는 것이 비슷하다. 그런데 창작 시기 대비 작품 수로만 보면 해방 후에 더 많은 가사 작품이 창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방 후에도 역사·사회 현실에 대응하여 창작된 가사가 많다고 하는 것은 가사문학사의 전개를 바라보는 시각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이들 가사의 존재는 해방 후에도 가사문학이 여전히 살아 있는 장르로 기능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가사문학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기존의 가사문학사에 대한 시각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해방 이후에도 역사·사회에 대응한 가사는 창작되었다. 한국전쟁 당시에 〈회심ᄉᆞ〉, 〈나라의 비극〉, 〈피란사〉, 〈원한가〉, 〈고향 ᄯᅥ난 회심곡〉, 〈추월감〉, 〈셋태비감〉 등의 가사가 당대인에 의해 창작되었다[33]. 이렇게 경술

32) 이 논문에서 가사문학사와 관련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했다. 고순희,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은 1910년대 가사문학의 전개양상과 가사문학사적 의의」, 『민족문화연구』 제84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471-504면.

33) 고순희, 「한국전쟁과 가사문학」,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4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4, 5-32면.

국치, 일제강점기, 해방, 한국전쟁까지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현실에 대응하여 가사문학은 언제나 창작의 힘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사문학사는 근대기 이후부터 한국전쟁까지의 시기를 따로 설정하여 '쇠퇴기'가 아닌 가사 작품의 실상을 고려한 새로운 개념과 용어로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들 가사의 가사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함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한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들 가사가 한결같이 봉건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드러난다. 이들 가사가 담보하고 있는 봉건성은 특히 향유의 확장성에 엄청난 제한을 안겨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은 가사문학 25편을 보면 이본을 지니고 있는 작품들이 많았다. 그러나 해방 공간에서 창작한 이들 가사는 〈조선건국가〉를 제외하면 이본이 없이 유일본만 전한다. 이 점은 이들 가사의 향유가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이들 가사가 담보하고 있는 봉건성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적응력을 상실하고 향유의 확장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들 가사의 작가 대부분이 경북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드러난다. 총 13편의 작가 중 경북지역에 사는 작가로 확인된 작가만 9명이나 된다. 이렇게 해방 즈음으로 갈수록 가사문학의 창작이 지역적으로 경북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가속화하고 있었던 데다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북지역에서조차 향유의 확장성도 제한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가사문학의 창작과 향유 전통이 점차 사라져버릴 것임을 예고해준다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고순희, 「만주동포귀환기 : 〈일오전쟁회고가〉」, 『한국시가연구』 제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187-213면.

_____, 「일제강점기 징병과 가사문학의 양상」, 『국어국문학』 제168집, 국어국문학회, 2014a, 179-202면.

_____, 「한국전쟁과 가사문학」,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4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4b, 5-32면.

_____,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은 1910년대 가사문학의 전개양상과 가사문학사적 의의」, 『민족문화연구』 제84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471-504면.

권영철, 『규방가사각론』, 형설출판사, 1966.

김은수, 「가사의 해제와 현대역 ⑨ 해방 후의 조선독립가라」, 『오늘의 가사문학』 제6호, 한국가사문학관, 2015, 320-334면.

문경문화원, 『우리 고장의 민요가사집』, 鄕土史料 제10집, 문경문화원, 1994.

백두현, 「일본군에 강제 징병된 김중욱의 〈춘풍감회록〉에 대하여」, 『영남학』 제9호,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6, 419-470면.

森田 芳夫, 「북한의 우수」, 『대동아전쟁비사 한국편』, 한국출판사, 1982.

영천시, 『규방가사집』, 도서출판 대일, 1988.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제16권, 여강출판사, 1994.

철도청, 『한국철도 80년 약사』, 철도청, 1979.

최한선・임준성, 「필사본 〈자탄가(自嘆歌)〉 해제」, 『고시가연구』 제28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373-401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자료편찬실, 『규방가사 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단동설육가」, 한국가사문학관, http://www.gasa.go.kr/WService/Gasa/Bibliograph/DetailView.aspx?TopID=A&SubID=01&VerseID=V00001353(2020. 9. 30. 검색).

「백의천수」,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경상북도 내방가사 조사・정리 및 DB 구축, http://waks.aks.ac.kr/dir/achieveView.aspx?secType=%EA%B3%A0%EC%84%9C%C2%B7%EA%B3%A0%EB%AC%B8%EC%84%9C&dirCate=&sType=&sWord=&fq=%ED%86%B5%ED%95%A9%EA%B3%BC%EC%A0%9CID_ext%3aAKS-2011-EBZ-2104&dataID=AKS-2011-EBZ-2104_DES@0080(2020. 9. 30. 검색).

「자탄가」, 한국가사문학관, http://www.gasa.go.kr/WService/Gasa/Bibliograph/DetailView.aspx?TopID=A&SubID=02&VerseID=V00001920(2020. 9. 30. 검색).

「조선건국가」,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경상북도 내방가사 조사・정리 및 DB 구축, http://waks.aks.ac.kr/dir/achieveView.aspx?secType=%EA%B3%A0%EC%84%9C%C2%B7%EA%B3%A0%EB%AC%B8%EC%84%9C&dirCate=&sType=&sWord=&fq=%ED%86%B5%ED%95%A9%EA%B3%BC%EC%A0%9CID_ext%3aAKS-2011-EBZ-2104&dataID=AKS-2011-EBZ-2104_DES@0188(2020. 9. 30. 검색).

「조선건국가사집」,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경상북도 내방가사 조사・정리 및 DB 구축, http:

//waks.aks.ac.kr/dir/achieveView.aspx?secType=%EA%B3%A0%EC%84%9C%C2%B7%EA%B3%A0%EB%AC%B8%EC%84%9C&dirCate=&sType=&sWord=&fq=%ED%86%B5%ED%95%A9%EA%B3%BC%EC%A0%9CID_ext%3aAKS-2011-EBZ-2104&dataID=AKS-2011-EBZ-2104_DES@0285(2020. 9. 30. 검색).

「조선건국가사집」, 대한민국역사박물관, http://www.much.go.kr/L/RLtvV75ucE.do(2020. 9. 30. 검색).

「한인사」,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경상북도 내방가사 조사・정리 및 DB 구축, http://waks.aks.ac.kr/dir/achieveView.aspx?secType=%EA%B3%A0%EC%84%9C%C2%B7%EA%B3%A0%EB%AC%B8%EC%84%9C&dirCate=&sType=&sWord=&fq=%ED%86%B5%ED%95%A9%EA%B3%BC%EC%A0%9CID_ext%3aAKS-2011-EBZ-2104&dataID=AKS-2011-EBZ-2104_DES@0293(2020. 9. 30. 검색).

「해방가라」, 한국가사문학관, http://www.gasa.go.kr/WService/Gasa/Bibliograph/DetailView.aspx?TopID=A&SubID=01&VerseID=V00004679(2020. 9. 30. 검색).

「히방환희가」, 한국가사문학관, http://www.gasa.go.kr/WService/Gasa/Bibliograph/OrgnImageViewer.aspx?Image=/contentfiles/dataorgnimage/verseinfodir/ab00203/n363_%uD574%uBC29%uD658%uD68C%uAC00%283%uBCF4%29_001.jpg&VerseID=V00003872&PageNum=1&EndNum=7&StartNum=1(2020. 9. 30. 검색).

【Abstract】

Gasa created in response to Korean Independence —the deployment aspect of Gasa, literary meaning,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Gasa—

Ko, Soon-He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deployment aspect of Gasa created in response to the Korean Independence space, and to investigate the literary meaning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Gasa.

In Chapter 2, the deployment aspect of Gasa created in response to the Korean Independence space were examined. This chapter focuses on conveying objective facts such as the location of the work, the author, the time of creation, and the content of the work. The target works are as follows. Haebanggara, Haninsa, Joseongeongugga, Sagukgasa, Haebanghuhwanhuilakga, Haebanghwanhuiga, Jatanga, Baekuicheonsa, Wonmangga, Dandongseolyukga, Ilojeonjaenghoegoga, Haebangga, Chunpunggamhoelok.

In Chapter 3, the literary meaning of these Gasa was investigated. These Gasa have a literary meaning that they functioned as documentaries of that time. These Gasa reflect the diverse lives of individuals living in the liberation space, and reflect the diverse perspectives of the people who looked at the liberation space. Thus These Gasa functioned as a documentary testifying to the liberation space.

In Chapter 4,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se Gasa was investigated. These Gasa are materials that show in detail that Gasa still functioned as a living genre even after libe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perspective of the Gasa Literature that the Gasa Literature entered a period of decline as it entere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eanwhil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se Gasa is limited in that most of the writers are limited to the Gyeongbuk region and that the world of works is all guaranteed feudality.

*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Pukyong National Univ.

Keywords: Korean-Independence, Haebangga, Sagukgasa, Joseongeongukga, Jatanga, Ilojeonjaenghoegoga.

접수일: 2020.09.30. ‖ 심사일: 2020.10.07. ‖ 게재확정일: 2020.11.16.